BTS 공항패션 21일 컴백하는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20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이들은 미국 NBC 토크쇼 '투데이 쇼' 출연을 위해 이날 미국으로 날아갔다. 감각적인 패션 스타일에 각기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 이채롭다. 왼쪽부터 지민·뷔·진·RM. 인천국제공항 | 뉴시스

연예뉴스 HOT 3

"첸과 함께"…엑소, 9인체제 유지

그룹 엑소가 9인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멤버 첸의 결혼 발표로 인한 팬덤 이탈 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20일 "엑소 멤버 전원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함께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첸은 1월13일 결혼 소식과 혼전임신을 고백했고, 이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팬들은 첸의 퇴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첸은 19일 팬들에 편지를 쓰고 "부족하고 서투른 말로 실망을 안겨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tvN '하이바이, 마마!' 넷플릭스 공개

김태희 주연 tvN 드라마 '하이바이, 마마!'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다. 넷플릭스는 20일 "아시아 지역과 영어권,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첫 방송일인 22일부터 매회 정규 방송 종료 직후, 일본과 그 외 지역에서는 4월19일 전 회차를 동시 공개한다"고 밝혔다. '하이바이, 마마!'는 사고로 가족의 곁을 떠나게 된 주인공이 사별의 아픔을 딛고 새 인생을 시작한 남편과 딸 앞에 다시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지니뮤직, 트로트 차트 진입 5.8배 늘어

트로트의 인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20일 음원사이트 지니뮤직은 "서비스 빅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톱 차트 200위권에 트로트 장르 음악이 진입한 횟수가 전년 동기 대비 5.8배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트로트 인기가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면서 음원 소비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뉴스인사이드 | 인기 드라마 '블루레이·DVD'를 팬들이 만든다고?

시간·열정 다 쏟는 열정팬 "드라마는 사랑이야"

"평생 간직하자" 팬심으로 똘똘 대본집 기획부터 SNS 홍보까지 "DVD 완성땐 힘든 과정 싹 잊어"

현빈·손예진 주연 드라마 tvN '사랑의 불시착'이 16일 화려하게 종영했지만 관련해 이제부터 또 다른 일을 시작한 이들이 있다. 드라마 애시청자들로 이뤄진 '감독판 블루레이/DVD 추진카페' 스태프다. 이들은 드라마 DVD 제작 의사를 제작사에 문의하고, 드라마 팬들을 대상으로 관련 아이디어를 취합하고 있다. 드라마 종영은 소장용 블루레이와 DVD를 품에 안기 위해 내딛는 첫 걸음이다.

이처럼 요즘 블루레이·DVD 제작의 첫 단추는 방송사나 제작사가 아닌 팬들이 꿴다. 드라마 열혈 팬들이 제작사와 소통하며 직접 제작 과정 전반에 참여한다. 수고비도, 공로패도 없지만 "팬심" 하나로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 '특전' 기획에 홍보까지…바쁘다 바빠!

한 편의 드라마가 종영할 무렵 팬들 중 일부가 이른바 'DVD 제작 추진팀'을 꾸리면서 일은 시작된다. 보통 수장 역할을 하는 '총대'와 10~20여 스태프로 구성된다. 이들은 그래픽 제작, 번역, SNS 담당, 외부 소통책 등 저마다 역할을 나눈다.

열혈 시청자들이 드라마 종영 이후 '감독판 블루레이/DVD' 제작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6일 막을 내린 현빈·손예진 주연 '사랑의 불시착' 시청자들도 현재 관련 아이디어를 취합하고 있다. 사진출처 | '사랑의 불시착' 블루레이/DVD 추진 카페

구체적 실행의 첫 단계는 예상 구매자를 파악하기 위해 '가수요 신청'을 받는 일이다. 일정 판매량이 보장돼야 제작사의 허가를 받아내기 쉽기 때문이다. '사랑의 불시착' 추진팀의 한 스태프는 20일 "팬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직접 홍보 이미지 등을 만들어 관련 인터넷 카페와 가수요 신청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유튜브, 네이버TV 등 영상 플랫폼과 각종 SNS에 각국 언어로 번역한 게시글을 수시로 올린다.

동시에 DVD 구성 요소에 대해 미리 팬들과 의견을 나눈다. 팬들이 원하는 영상 자료 목록을 만들고, 자료 확보를 위해 제작사나 외주유통사와 여러 차례 협의한다. 본편 이외에 NG영상과 본편에 실리지 못한 삭제 장면 등 최대한 풍성한 구성을 담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배우들의 코멘터리(촬영 후일담)를 위한 질문지를 만들고, 포토카드와 대본집 등을 비롯한 '특전'을 기획하는 것도 이들의 몫이다. 2016년 tvN '시그널'의 경우, 경찰관인 주인공들의 경찰신분증과 수사수첩 등을 구성품으로 넣어 현실감을 높였다. 같은 해 MBC '쇼핑왕 루이'도 주인공 서인국이 기억상실증 설정인 점을 살려 '기억수첩'을 특전으로 내놨다. 사소한 설정도 허투루 보지 않는 진득한 애정이 톡톡 튀는 DVD 구성의 밑바탕이 되는 셈이다.

● "평생 기억하고 싶어서"

추진팀 '총대'와 스태프는 제작사 제작PD, 방송사 담당자, 외주유통사 측과 함께 블루레이와 DVD의 윤곽을 잡아간다. 제작 관련자들도 판매 이윤보다 '팬 서비스'의 개념으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아 추진팀의 의견을 존중하는 편이다.

하지만 여러 관계자들과 동시에 소통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종종 일부 스태프가 이탈하기도 한다. 2017년 한 드라마의 DVD 제작팀 '총대'였지만 신분을 밝히길 꺼린 A씨는 "드문 경우이지만 외주유통사와 소통 착오로 막판에 제작이 무산됐다"며 "생업 이외 모든 시간을 쏟았는데 허무했다"고 회상했다.

DVD와 블루레이를 만드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내가 좋아하는 배우와 드라마를 소장본으로 평생 간직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다. 최근 '사랑의 불시착' 감독판 블루레이와 DVD 추진에 힘을 쏟는 스태프는 "드라마에 대한 애정과 감독판을 사고 싶다는 욕심으로 이 일에 지원했다"고 말했다. 드라마의 제작팀에 참여한 또 다른 스태프는 "카페 특성상 서로 실명도 모르는 상태로 드라마에 대한 애정으로 똘똘 뭉쳐 DVD를 완성했을 때 힘든 과정을 잊게 된다"며 웃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네이버 연예뉴스 댓글 중단은 최선의 선택"

전문가들 "온라인 댓글 문화에 경종" 표현의 자유 제한 지적보단 폐해 초점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카카오의 다음에 이어 3월 중 연예뉴스 댓글과 인물명 연관검색어 서비스를 중단키로 하면서 연예계 안팎에서 환영의 시선이 나온다. 향후 더욱 성숙한 온라인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네이버는 앞서 19일 "연예인의 인격권 침해 문제에 책임을 공감한다"며 댓글은 구조적 개편이 완료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닫고, 연관검색어는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연예계에서는 포털사이트 댓글과 연관검색어가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생산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도구로 쓰여 왔다는 지적이 많았다.

네이버의 결정 이후 소녀시대의 수영은 20일 SNS에 관련 기사와 함께 "멋진 파도처럼 살다가 방파제가 되어준 아이"라며 작년 10월 사망한 가수 설리(최진리·25)를 추모하는 글을 올렸다. 생전 악성 댓글의 고통에 시달렸던 고인의 사례가 재조명되면서 당시 카카오의 다음 측은 실시간 검색어 순위와 연예뉴스 댓글 등을 폐지한 바 있다.

손성민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장도 이날 "댓글과 연관검색어 폐지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만큼 새로운 온라인 문화를 이끄는 첫 발판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올바르게 정착되지 못한 온라인 댓글 문화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현재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진단했다. 정덕현 문화평론가는 "그동안 온라인에서 문제로 꼽혀온 각종 부작용은 성숙하지 못한 댓글 문화가 낳은 폐해였다"며 "이번 조치가 결코 바람직하다고만 볼 순 없지만 가장 빠르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교육·퍼즐

에듀윌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 지속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교육위원장상' 수상 결실

1992년 창립 당시부터 교육이 필요한 곳에 빛을 밝혀온 에듀윌이 지난해 11월 KBS 아트홀에서 개최된 '2019년 대한민국 봉사대상'에서 국회 교육위원장상을 받으며 또 한 번 사회공헌위원회의 공적을 인정받았다.

대한민국 봉사대상은 한국유엔봉사단과 한국국제연합봉사단이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후원하는 시상식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나눔과 봉사를 실천한 단체나 개인에게 시상하고 있다. 지난 7월 탈선 및 범죄 예방과 교육 소외 해소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법무부로부터 '제1회 범죄예방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다.

에듀윌 사회공헌위원회 관계자는 "보상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닌데 많은 분들이 노력을 알아주시니 감사할 따름이다"며 "앞으로도 규모나 기록에 연연하지 않고, 이웃들의 교육과 경제 소외 문제의 해소를 목표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에듀윌은 지난 4일 네이버 해피빈과 사회공헌 업무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네이버 해피빈은 네이버의 온라인 사회공헌 플랫폼으로 에듀윌과 네이버 해피빈은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의 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서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2017년 조직되어 크고 작은 사회공헌활동을 체계적으로 펼치고 있는 에듀윌 사회공헌위원회는 검정고시 지원, 장학재단 운영, 임직원 나눔펀드 등 "지역사회의 꿈을 실현하자"라는 목표 아래 새로운 형태의 봉사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1~9까지의 숫자를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도쿠문제

			2		8		5	
8		6		3		9		
	4			9			2	
7				1				3
	6	1	3		9	8	7	
9				8				2
	1			2			3	
		7		6		2		1
	5		8		1			

	2		4				8	
7				2	1			4
		8	7			6		
9		4		6			7	
	8		3		7		9	
	3			9		2		8
		2			3	9		
5			9	1				2
	9				2		6	

■ 스도쿠정답

3	5	2	8	7	1	4	6	9
4	9	7	5	6	3	2	8	1
6	1	8	9	2	4	7	3	5
9	3	4	7	8	6	5	1	2
2	6	1	3	5	9	8	7	4
7	8	5	4	1	2	6	9	3
5	4	3	6	9	7	1	2	8
8	2	6	1	3	5	9	4	7
1	7	9	2	4	8	3	5	6

3	9	1	5	8	2	4	6	7
5	7	6	9	1	4	8	3	2
8	4	2	6	7	3	9	1	5
6	3	7	1	9	5	2	4	8
2	8	5	3	4	7	1	9	6
9	1	4	2	6	8	5	7	3
4	5	8	7	3	9	6	2	1
7	6	9	8	2	1	3	5	4
1	2	3	4	5	6	7	8	9